조선왕실 원찰 흥천사 성보 면면 살피다



대흥천사 불교미술
문명대 외 지음
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3만원

신덕왕후 능침사원으로 조성돼
조선 초기 최대 불교사찰 명성
불화, 불상 등 5개 분야 연구
전문가 참여…28편 논문 담아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주장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성북구 흥천사(興天寺)는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으로 1397년에 조성된 후 왕실 원찰, 조계종 본사, 선종 수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조선 초기 최대의 불교 대찰로 너무나 유명했다.

흥천사의 능침사원 기능은 태종 때 신덕왕후 능인 정릉이 성북구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흥천사인 신흥사에 계승됐고 연산군 때 황화방 흥천사가 소실되면서 왕실 사원의 기능까지 계승돼 명실상부 성북구 흥천사(신흥사) 시대가 된 것이다. 그 후 숙종 때의 중창을 거쳐 고종 때 대원군의 흥천사 사명(寺名)의 복원으로 흥천사는 완전히 옛 흥천사 왕실사원의 모든 기능을 복원하게 된다.

흥천사가 다시 옛 사격을 복원한 것은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의 원력 때문이다. 특히 금곡 스님은 (사) 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함께 흥천사의 역사와 불교미술에 대한 학술대회를 5년간 개최해 흥천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대중들에게 알렸다. 밝혔고 널리 알리는데 힘써왔다. 이를 통해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42수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600년 왕실원찰 대흥천사 불교미술〉은 지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이 수정 · 보완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흥천사의 역사와 사상(4편), 흥천사의 불교조각(6편), 흥천사의 불교회화(8편), 흥천사의 불교공예(6편), 흥천사의 불교건축(4편) 등 5개 분야, 총 논문 수 28편의 방대한 양이다.

이중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도 있다. 바로 보물 '흥천사 동종(대종)' 의 환지본처다. 주요 저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흥천사 대종 명문으로 본 흥천사의 성격과 대종의 보존' 을 통해 종에 새겨진 명문을 분석하고 향후 종의 보존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대종에 새겨진 명문은 세조의 상서로운 치세를 천명하고, 이로 인해 회암사 석가여래사리가 분신(分身)하고 세종 때의 분사리가 다시 분사리해 그 수가 102과가 됐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해 대사면을 내리고 손수 능엄경을 번역했으며, 불보살상 4구를 조성해 흥천사 사리각에 안치했다. 세조와 왕후는 사리각에 안치된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종을 조성해 중생을 잘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대종의 조성은 회암사 탑 사리의 분신이 계기가 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세조가 〈능엄경〉을 번역한 것은 선종 흥천사의 기본 경전인 〈능엄경〉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불교 중흥과 국운융창을 여는 지름길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물로 지정된 흥천사명 동종.

흥천사 대종은 연산군 10년(1504)에 흥천사가 전소되고 중종 5년(1510) 공식적으로 폐사되면서 방치되다가 영조 23년(1747)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걸리게 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광화문이 다른 곳으로 옮겨짐에 따라 덕수궁으로 이운됐다. 하지만 2006년 보물로 지정될 때까지 노상에 노출되면서, 관람객이 종에 낙서를 하는 등 제대로 된 보존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는 보존처리를 마친 상태며, 수장처를 논의 중에 있다. 본래는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누각을 만들어 전시하려 했으나, 흥천사와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대종을 국립박물관으로 이안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유물은 원 장소로 환지본처하는 것이 원칙이자 대세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며 "이 방안보다는 원래의 흥천사로 이안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정성을 다해 예경하고 보존하는 곳이 사찰 이상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흥천사 불교미술〉은 사찰의 불교미술을 면면을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흥천사의 역사와 불교미술이 이 한 권의 저서로 모두 밝혀질 수 없겠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서를 통해 어느 정도 조명해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삶의 격을 높여 주는 영성의 모든 것



영성이란 무엇인가
필립 셀드레이크 지음
한윤정 번역
불광출판사
1만 6000원

영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 만큼 긴 역사를 가졌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개념이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수 세기 동안 지속 · 발전해 온 '영성' 의 개념과 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아우른다. 나아가 영적 태도 또는 영적 수행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번영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짚어본다. '왜 영성이 필요한가?'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영성은 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을 특정 종교의 개념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넓고 깊은 영성의 스펙트럼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좁고 제한적인 관점으로 영성을 이해하면 그것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삶 전반에서 영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 심리학 · 철학 · 젠더연구 같은 학문 분야는 물론이고, 보건의료와 심리치료 같은 의료 분야, 경제 · 경영, 예술과 스포츠 영역에서도 영성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영성이 주목받는 이유, 인간 삶과 행복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자질로 각광받는 이유를 저자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육체적 만족이나 정신적 우월감을 넘어선 목표들에 자연스럽게 끌리면서 더 깊은 의미와 성취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영성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삶의 도구로 가지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은 삶,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적 삶을 향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영성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성장과 변화와 진보로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영적 능력 또는 영적 성장의 가능성만큼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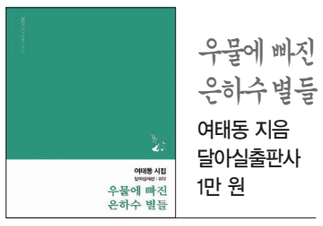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영적 수행은 사람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영적 수행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훈련을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양보한다는 점에서 영적 수행에는 어느 정도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 56쪽

대체로 영성은 무엇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영성은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심 찬 개념이다. – 172쪽

가을에 읽을 불교시집들

잉크와 염불, 산채비빔밥 같은 시



우물에 빠진 은하수 별들
여태동 지음
달아실출판사
1만 원

계간 〈시와 세계〉 겨울호에 '어매의 어매' 외 5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여태동 불교신문 논설위원이 첫 시집 〈우물에 빠진 은하수 별들〉을 펴냈다.

시집에는 기쁜 일도 많고 곡절도 많은 우리의 일상을 활달하게 노래한 시 65편이 실렸다. 상념은 감추지 않고 상념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선취와 파격이 있다. 또 자연의 시은에 감사하는 소박한 농심이 있고, 고향의 언어는 실감나고 따뜻하다.

언론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불교의 자비와 이타심 그리고 농부로서 생태와 환경에 관한 고민이 어우러졌다.

여태동 시인은 시를 통해 인간이 농사를 짓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진다. '직업으로 농부' 가 아닌 지구를 살고 있는 '인류의 일원' 으로서의 농사가 공생하고 있는 동식물과 연관성을 따져본다. 20년 넘게 '도시농부' 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자신의 아름다운 삶의 일부분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여태동 시인은 "시랍시고 끄적거리기를 30여 년, 첫 시집을 내고 우두커니 서서 나를 본다"면서 "학가산 바라다보이는 고향 막지고개에 초가삼간 지어 구들 놓고 군불 지피며 살며, 바지게에 활자 가득 지고 질밤재와 달밤재 오르내리며 시밭(詩田) 일굴 날 기다린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시인 **여태동**은?

소백산과 태백산이 켜켜이 드리운 경북 영주 막지고개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경북대 영문학과 졸업 후 동국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 중이다. 사찰과 전통 한옥 고택, 동화, 고승인터뷰, 도시농부 일기 등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법정 스님 관련 등 1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일상 도처서 감지하는 아픔과 슬픔



지독한 설득
진효성 지음
도서출판 애지
1만 2000원

2014년 〈시와경계〉로 등단한 진효정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지독한 설득〉이 도서출판 애지에서 출간됐다.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픔과 슬픔이다. 일상의 도처에서 아픔이나 슬픔을 감지하는 시인의 감각은 집요하고 예민해서 아픔이나 슬픔이 감상이나 비애로 추락하지 않고 긴장감을 획득하면서 아름다운 시로 빚어진다. 이를테면 빗물 속에 떨어진 칸나꽃을 보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기 혓바닥을/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거나 바람에 밀쳐진 빨래를 보면서 "구겨진 빨래가 젖은 얼굴로 포개져 있었다"고 표현하는 식이다.

동료 시인으로부터 "자기 내면의 풍경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깊이 있는 통찰과 객관적인 언어로 그 풍경을 묵직하고 날렵하게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시인답게 이번 시집은 불필요한 치장이나 수다가 없고 자신의 아픔을 미화시키려는 어떠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와 맞서는 시인의 눈빛은 가차 없다. 이처럼 직시의 힘으로 길어 올린 웅숭깊은 사유가 그의 시집을 더욱 묵직하게 만든다.

진효정의 시는 아픔과 슬픔으로 빚어내는데도 속으로 가두고 우려낸 탓에 곰삭은 맛이 우러난다. 이원규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진효정의 시는 참 맛있다. 곱씹어볼수록 깊은 맛이 계속 우러난다. 슴슴하다가 문득 얼큰하고, 시큼 달콤하다가도 쓴맛이 확 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베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